

# 1100억 대출 만기연장 불가... 최규옥 회장 '경영권 휘청'

## 2215억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최 회장, 오스템 지분 20.64% 보유 내달 14일부터 순차적으로 만기 도래 금융사 13곳 중 12곳 만기연장 안돼 APS홀딩스 등 보유주식 매도 가능성

오스템임플란트의 2215억원대 횡령 사건이 최규옥 회장의 경영권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최 회장은 오스템임플란트의 지분 20.64%를 보유 중인 최대주주다. 그는 오스템임플란트의 주식을 이용해 1100억원 가량의 담보대출을 실행했으며, 금융사 12곳이 만기 연장 불가 방침을 통보했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최규옥 회장은 오스템임플란트의 주식 175만8708주(전체 지분의 12.31%)를 담보로 국내 금융사 13곳(교보·대신·삼성·유진투자·하나금융투자·하이투자·한국증권금융·한국투자·한화투자·현대차·KB·NH·SK증권)에서 대출을 받았다. 최 회장의 오스템임플란트 보유주식 294만3718주 중 절반 이상이 담보대출 계약이 체결된 상태다. 대출금 규모는 1100억원이다.



서울 강서구 오스템임플란트 본사. /뉴스시스

◆금융사 12곳, 만기 연장 불가 방침 통보 최 회장에게 주식담보대출을 해준 금융사 13곳 중 12곳이 만기 연장 불가 방침을 통보한 상태다. 오스템임플란트의 횡령 사건으로 인해 한국거래소의 상장 적격성 심사 대상에 오르면서다. 이르면 오는 2월 14일부터 해당 대출의 만기가 도래한다. 2월 250억원, 3월 320억원, 4월 30억원, 5월 120억원, 6월 80억원, 12월 300억원을 갚아 나가야 한다. 최 회장의 주식 담보대출 담보유지비율은 한국증권금융 110%에서 SK증권

### <최규옥 오스템임플란트 회장 주식담보대출 내역>

연번	계약 상대방	주식 등의 수	계약기간	대출금액	담보유지비율(%)	이자율(%)
1	SK증권	78744	2022.02.28	50억	250	4.00
2	교보증권	201776	2022.02.14	100억	200	2.90
3	한국증권금융	405715	2022.12.17	250억	110	2.56
4	KB증권	65935	2022.04.25	30억	140	4.20
5	한국투자증권	146039	2022.05.23	80억	160	4.20
6	하나금융투자	107596	2022.02.21	100억	140	3.75
7	현대차증권	201208	2022.03.14	100억	200	3.60
8	현대차증권	107597	2022.03.14	100억	200	3.60
9	NH투자증권	56339	2022.06.13	30억	170	4.00
10	한화투자증권	90580	2022.03.16	50억	200	3.90
11	대신증권	90745	2022.06.29	50억	150	3.50
12	한국투자증권	49231	2022.05.30	40억	160	4.20
13	유진투자증권	51441	2022.03.02	50억	180	3.60
14	삼성증권	36891	2022.03.15	20억	220	3.60
15	하이투자증권	68861	2022.12.21	50억	200	3.50

/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250% 등 금융사마다 다르다. 금융사는 돈을 빌려줄 때 담보유지비율을 설정해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대출금의 일정 비율 이상을 유지하도록 한다. 융자로 잡힌 주식이 시세변동으로 인해 하락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다.

만약 주가가 하락할 경우 채권자는 추가 증거금을 요구하거나 담보 주식을 반대매매해 대출금을 회수한다. 반대매매란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단, 현재 오스템임플란트의 주식은 거래 정지 상태로 반대매매

가 불가능하다. 최 회장이 추가 증거금을 제공하거나 개인적으로 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셈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증권사 입장에서 난감할 것"이라며 "만약 오스템임플란트 거래가 재개된다 하더라도 주가 하락이 불가피하며, 대출금을 현금으로 갚으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APS홀딩스, 한스바이오메드 소액 주주 어쩌나

최 회장이 APS홀딩스와 한스바이오

메드 등 보유한 주식을 대규모로 매도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최 회장은 코스닥 상장사인 APS홀딩스 155만8039주, 한스바이오메드 18만7000주 등을 보유하고 있다. 주식담보대출의 만기 상환일이 다가오며, 해당 주식의 오버행(잡채적 매도 물량) 리스크가 높아진 상태다. 특히 APS홀딩스의 경우 지난해부터 집중적인 매수세를 보여왔다.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꾸준히 지분을 늘리면서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155만8039주, 7.64%까지 지분을 확보했다. APS홀딩스의 대표이사(29.96%), 토러스투자자문(8.55%)에 이어 3대 주주다.

한스바이오메드는 최 회장뿐 아니라 오스템임플란트 회사 차원에서도 전략적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오스템임플란트가 200억원 규모의 한스바이오메드 전환사채(CB)를 보유 중이다.

한편 오스템임플란트는 횡령 금액을 기존 1880억원에서 2215억원으로 정정 공시했다. 2020년도 말 별도 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금의 108.18%에 달하는 금액이다. 횡령인 이 모씨가 빼돌렸다 회사 계좌로 다시 입금한 금액이 추가로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 모씨는 현재 구속 수사 중이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 인간 뇌 닮은 'M램 인-메모리 컴퓨팅' 세계 첫 구현

삼성전자, 학술지 네이처에 논문 게재 메모리에 데이터 저장 넘어 연산 수행 정보 '병렬연산' 전력소모 현저히 낮춰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M램도 직접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을 고안했다. 차세대 저전력 인공지능 칩에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12일 학술지 네이처에 'A crossbar array of magnetoresistive memory devices for in-memory computing'라는 제목의 논문이 게재됐다고 13일 밝혔다.

이 논문은 M램을 기반으로한 인-메모리 컴퓨팅을 세계 최초로 구현하는 내용이다. 종합기술원 정승철 전문연

구원이 제1저자로, 함돈희 펠로우와 김상준 마스터가 공동 교신저자에 이름을 올렸다. 반도체연구소와 파운드리 사업부 연구원도 공동으로 연구에 참여했다.

인-메모리 컴퓨팅은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뿐 아니라 데이터를 연산하는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는 최

첨단 칩 기술이다. 종전에 컴퓨팅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와 연산을 책임지는 프로세서를 따로 구성해 데이터를 이동하는 시간과 전력 소모 등이 적지 않았지만, 인-메모리 컴퓨팅은 대량의 정보를 메모리 내에서 병렬 연산할 수 있어 전력 소모를 현저히 낮출 수 있다. 차세대 저전력 인공지능(AI) 칩을 만드는 유력한 기술로 주목 받는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차세대 비휘발성 메모리로 인-메모리 컴퓨팅을 구현하려는 시도를 이어왔다. M램도 차세대 비휘발성 메모리로, 안정성이 높고 속

도가 빠르며 내구성도 높아 파운드리에 내장하거나 저장용으로 주목받아왔다.

그러나 저항값이 낮아 인-메모리 컴퓨팅으로는 이점이 크지 않았다. 삼성전자 연구진은 '전류 합산'이 아닌 새로운 개념의 '저항 합산' 방식으로 인-메모리 컴퓨팅 구조를 제한하면서 저전력 설계에 성공했다.

연구진은 M램 기반 인-메모리 컴퓨팅 칩 성능이 인공지능 계산에서 숫자 분류 최대 98%, 얼굴 검출에서 93% 정확도로 동작하는 것을 검증하기도 했다.

/김재용 기자 juk@

## 온·오프라인 맞춤형 개인쇼핑몰 창업

### 창업비용 99만원

나만의 맞춤형 개인 쇼핑몰 제공 평생 수익 창출

200여개 홍삼제품 +3만여개 인기상품 +자체상품 등록 판매가능

25년 역사 브레인 TV 방송국소유 핫터그룹

대한홍삼주식회사/㈜핫터라이프 T.010-4480-0045

## 지평 생막걸리 편의점 판매가 20% 인상

▶▶ 1면 '버거·치킨 이어 주류까지'서 계속

다만 이 종량세율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결정된다. 소주 등 종가세를 그대로 적용받는 주류와의 형평성을 위해서다. 이는 2020년까지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지만, 지난해 물가가 폭등하자 세액이 크게 오르게 됐다. 때문에 지난해 물가상승률 2.5%를 반영해 2022년도 종량세율을 확정하는 것이다.

이미 막걸리의 경우 제품을 만드는 데 필수적인 쌀 가격이 큰 폭의 오름세를 보임에 따라 제품 가격을 일부 올렸다.

국순당은 지난해 12월 쌀막걸리 제품 가격을 9.9~25% 인상했다. 국순당 쌀막걸리 750ml 공급가격은 1040원에서 1300원 올랐고 국순당 쌀 캔 350ml

공급가격은 740원에서 840원으로 인상됐다.

경쟁사인 지평주조는 이달 1일부터 지평 생막걸리의 편의점 판매 가격을 20% 가량 인상했다. 지평 생 쌀막걸리 750ml 제품은 1900원에서 2300원으로 가격이 올랐다. 1.7l 제품은 3000원에서 3600원으로 가격이 인상됐다.

4월 이후부터는 올해 적용되는 종량세 인상분에 따른 막걸리, 맥주 가격 인상이 이뤄질 수 있다. 오비맥주를 비롯해 하이틴으로, 그동안 가격을 동결했던 막걸리업체 등이 세금 인상을 제품 가격에 반영하는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 국제 곡물 가격이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는데다 세금이 늘어날 경우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주류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 /신원선 기자 tree6834@